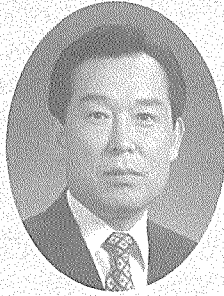


고유가 시대의 생존전략



김 홍 경

〈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은 중동전쟁 등 돌발상황으로 인한 석유 공급 부족 파동이었지만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OPEC회원국들의 고유가 정책으로 붙여온 『가격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전쟁위기마저 높아가고 있어 앞으로의 유가전망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면서 세계 6위의 석유소비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고유가의 여파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 무역수지의 감소폭이 GDP의 1.7%에 달해 일본이나 대만등과 같은 주요 경쟁국 사이에서 고유가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분석된 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체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에서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사용하는 석유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결국 수입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만이 에너지비용부담을 줄이고 고유가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에너지절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에너지절약은 결국 '티끌모아 태산' 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과거에 시행했던 일률적인 '안쓰기 운동' 을 대신할 여러 가지 고효율기기가 많이 나와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수고를 덜면서도 에

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효율 조명기기이다. 기존의 40mm 형광등을 32mm 고효율 형광등으로 바꾸면 약 30% 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백열전구를 전구형 형광등으로 바꿀 경우 무려 70%나 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효율 조명기구는 기존제품보다 수명도 길고 밝기도 더 밝은 장점이 있다. 고효율 조명기기의 이용은 각 가정의 에너지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20%를 절약하면 100만kW급 원자력발전소를 하나 안 지어도 될 만큼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이란 효율높은 기기를 사용방법에 따라 잘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에너지이용기기를 구입할때는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의 기본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92년부터 냉장고, 에어컨, 승용차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1등급인 제품을 사용하면 일반제품보다 많게는 30%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동안에 낭비되는 전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절전형 사무가전기기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이용할 경우 전국

적으로 연간 3500억원어치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 낭비되는 사소한 에너지들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다. 최근들어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자극 받은 기업체와 소비자들이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에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무할만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선택한 고효율 기기를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면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의 각 가정에서 냉장고 문 여닫는 것을 하루에 네 번만 줄여도 연간 126억원어치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세탁기로 세탁을 할 때 두 번 세탁할 것을 한번에 모아서 세탁하면 물과 전기를 30%씩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 방법들을 각 가정에서 모두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국가 에너지절약은 시작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절약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절약 기반이란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가정이나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이러한 에너지절약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절약 기반이 가장 필요한 곳은 우리나라 에너지사용량의 56%를 차지하는 산업현장이다.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가정에서는 에너지절약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에너지관련 투자는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체는 품질향상이나 고품위 제품의 개발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투자는 저절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에너지비용부담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OPEC 회원국들의 목소리가 유가에 반영되어 고유가 시대가 되었고, 향후에도 유가 밴드제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유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80년대 이후부터 작년 초까지 누려왔던 저유가 시대의 상황을 앞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 기업체들이 서둘러 산업설비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기반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자들의 고효율기기 및 시설 교체에 장기저리의 자금 및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에만 4,735억원을 에너지 절약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중 에너지절약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자발적 협약(VA: Voluntary Agreement)을 맺은 기업은 저리의 자금 용자는 물론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절약 지원을 위한 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 각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이나 복도에 들어가는 공동조명을 절전형으로 교체할 경우 많은 공동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활용하면 투자비의 부담 없이 시설교체가 가능하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은 아파트 단지 등의 주차장, 복도, 가로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 기업에서 먼저 자금을 투자하여 기기를 교체하고 추후에 절약되는 금액에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에너지절약기기를 설치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시설을 개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이들 기업에서는 보일러 설치, 폐열 회수와 같은 분야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ESCO를 잘 활용하면 투자비 부담없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은 에너지가격 현실화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는 처음에는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다소간 부담이 되겠지만 소비자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징수 금액의 일부를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업의 고효율기기 교체 투자비용을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이용해 장기 저리 또는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가 에너지절약의 기반을 조성할 때 에너지절약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고,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에너지수입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고유가 위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에너지절약의 식과 실천의 확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당면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범국가적으로 획기적인 에너지절약을 이루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